

# 컬렉터 몰려야 미술축제 살아난다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 조성된 갤러리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광주국제아트페어 결산

## 하과제

### 불편한 동선·분산 배치된 부스...관람객들 발품 주관사 매년 공모...전시계획·노하우 축적 부실 장기계획 세울 수 있는 전담인력 확충도 시급

‘제7회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24~28일)가 관람객 9만명, 900점 판매, 판매액 30억원 등의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채 폐막했다. 관람인원은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처음 열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해외 갤러리 증가, 지역작가 부스 확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비엔날레특별전, ‘패치워크 광주’ 등 다양한 부대전시와 행사도 관람객 발길을 붙잡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불편한 관람동선, 분산된 부스 배치는 관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갤러리부스와 개인작가부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행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를 수 있는 전담인력 확충도 또다시 대두됐다. 이는 해마다 지적돼 온 문제점이다.

불편한 동선 문제는 문화전당 복합관, 기획관 등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 이번 아트페어는 전용 전시장이 아닌 로비, 복도, 콘퍼런스홀, 세미나실 등에 부스가 조성된 탓에 관람객들은 불편한 발품을 팔았다. 예술극장에서 갤러리부스를 관람한 후 문화창조원으로 옮겨 또 다시 표검사를 한 후 작가부스를 관람해야했다. 이와 관련, 작가들과 미술 관계자들 사

에서는 “차라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사전 전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관람객이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문화전당은 전년도에 세운 1년 일정에 따라 전시를 연다. 하지만 광주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미술협회는 지난 4월에서야 집행위원회를 꾸려 문화전당과 장소협의를 하는 등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결국 문화전당 비어있는 공간에 부스를 배치하다 보니 동선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전당은 접근성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계속 아트페어를 개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화전당을 다시 아트페어 전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좀더 이른 시기에 주관기관을 선정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현재 광주미술협회는 내년 아트페어를 주관한다는 장담이 없다. 따라서 내년에 문화전당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광

주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광주미술협회로 주관기관이 계속 바뀌다 보니 다음 전시계획과 노하우 축적이 부족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아트파티’도 아쉬웠다. 주목받은 행사였음에도 실제 행사 성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파티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박서보 화백,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VIP들이 참여한 교류행사다.

애초 VIP들과 작가들이 어울리며 작품 판매와 후원을 이끈다는 방침으로 행사가 마련됐으나, VIP초청이 작품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등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개최한 행사인 만큼 부족한 좌석, 숙박 문제 등 곳곳에서 운영 미숙도 드러났다.

아트페어는 무엇보다도 판매가 잘돼야 유명 갤러리 참여가 늘어 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번 아트페어에 참여한 갤러리 중 일부 광주지역 갤러리와 중국 갤러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액 증가’와 ‘관람객 동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확보해 장기적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B작가는 “이번 아트페어에 참여한 프랑스 갤러리들이 작품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 울상이었다”며 “이름값에만 치우친 VIP 초청보다는 실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국내외 콜렉터를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 7개국 민속춤 공연

## 9월 2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중국, 몽골 등 전 세계 7개국의 민속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 9번째 열리는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는 ‘2016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경성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여수 예술마루에서 공연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광주 공연도 진행한다. 9월2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

중국팀으로는 운남성의 쿤밍시 가무단이 참여한다. 1970년부터 운남 예술의 뿌리인 26개의 다양한 소수민족의 예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Mawar Budaya Studio Dance’팀은 100여명의 무용수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관광청과 매칭해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춤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밖에 터키와 인도, 중국, 프랑스, 오만,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등에서 공연을 가진 타지키스탄 무용단 ‘Bazmoro Dance ensemble’도 눈길을 끌며 남부 인도의 케랄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킬라 일팔링카라 카타칼리재단 무용팀도 공연을 갖는다.

특별초청 팀으로 참여하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민속춤 단체는 ‘African Arts Productions’이다.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리듬과 형형색색의 의상, 뛰어난 안무, 큰 호리병을 이용한 아크로바틱 춤, 세레르족, 디올라족, 엘라족, 펠르족의 민속 무용과 가면, 천 치마, 드림

또 조선대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김미숙 뿌리무용단이 출연하며 국가 지정 중요무

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명창이 특별 공연을 갖는다. 9월 2일 오전에는 광주예고에서 ‘몽골 전통춤 배우기’ 시민문화강좌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29일 진주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거제(31일), 부산(9월3일)에서도 진행된다. 국제학술포럼은 9월 1일 부경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

## 극단 예린, 이오네스코 연극 ‘수업’ 무대 9월 9일까지 ‘예린’ 소극장

극단 예린 소극장이 이오네스코의 연극 ‘수업’을 무대에 올린다. 9월9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공연 없음까지 예술의 거리 예린 소극장.

‘수업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인간 갈등과 언어가 가진 폭력성을 그린 작품으로 희곡이 갖고 있는 무거움과 난해함을 줄이고, 소통의 부재가 어떻게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지에 초점을 맞췄다.

평화롭고 조그마한 소도시, 학교열에 불타는 학생이 수업을 받으러 노교수를 찾아온다. 노교수는 학생의 지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덧셈, 뺄셈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뺄셈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위기에 봉착한다. 하지만 학생은 억단위 곱셈 문제는 척척 풀어나고 교수는 당황한다.

수업이 진행 될수록 두 사람의 간극은 벌어지고, 마침내 감정이 폭발해 상황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

윤여송·심현지·남승연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223-2690. /김미은기자 mekim@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 ◆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 6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 ◆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낭송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광주전변 특설 행사장(광주공원 앞) **9/30(금) ~ 10/2(일) 3일간**  
총장축제 기간중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7174-1257



화합과 상생으로  
영·호남의 오작교를 잇다

주최 **광주일보사** **每日新聞社**